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큰

남편의 권유로 견협에서

바쁜 생활에 쫓기는 사람들 그것도 가족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한시도 편히 쉴 수 없는 주부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건강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 중요성을 뒤로 하고 오직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몸이 약했으면서도 자신의 건강에 별 관심이 없었던 정춘자씨는

자궁암



재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궁암을 발견, 완치한 **鄭春子** 씨

남편의 권유로 건협 충남지부에서 건강검사를 받고, 뜻밖의 “자궁암”을 발견, 강군옥 건협 충남지부 부속 의원장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해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을 지키는데에는 어느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기에 그녀를 찾아가 봤다.

옛 양반들의 지혜가 발전으로 이어진 대전시

누렇게 익은 벼들이 사열하고 초가을의 싱그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우리들 마음속의 고향, 대전시에 첫발을 디뎠다. 기자는 온 세계인의 축제인 '88서울올림픽제전을 맞이하여 곳곳에 서 있는 호돌이 모습과 시원스럽게 단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옆을 수 놓은 무지개빛 꽃무덤을 보았다. 그 옛날 가문있는 양반네들의 호령소리와 대갓집 하인들의 지칠줄 모르는 다듬이질 소리가 이어져 오늘날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대전시를 보았다.

건강검사를 받으라는 남편의 강력한 권유...

자꾸 흐르는 땀을 씻어내리며 도착한 정 춘자(51세)씨의 색바랜 대문위에 걸려 있는 초인종을 누르니 기다린 듯이 열리는 대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났다.

『아픈 몸도 다 낫고 해서 겨울이 오기전에 집단장을 하니 집안이 어수선합니다. 어서 들어 오시지요』

방안에 들어 서니 정여사의 말과는 달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세간살이들이 평소 그녀의 깔끔한 성격을 말해 준다.

『너무 고마워서 어떤 말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원래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애아빠가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는 있지만 수술 할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차근차근 지난 일을 돌이키며 말을 이었다.

『4~5개월 전이니까 5월 초순쯤 되었을 겁니다. 하루는 애아빠가 당신도 몸이 허약한 편이니까 건강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한 체질이지만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검사를 받느냐고 반문하면서 신경도 안썼는데 자꾸 권하시기에 시간이 나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았죠』

▶ 이번 경험을 통해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큰 재산임을 깨달았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검사를 권한다고 정춘자씨는 말한다.



건강의 친절한 안내와 편리한 검사가 인상에 남아...

『그러던중 건협 충남지부근처에 불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협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신 몇년전에 대수술을 하고통이 있어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정여사는 4년전 가슴 한쪽을 도려 내는 유방암수술을 받은지라 잠재적으로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아가씨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서 권하기에 몇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막상 검사를 받아 보니까 검사료도 저렴하고 검사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내심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어디 아픈 곳도 없는데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과를 알리는 전화-자궁암이니 재검사를

집에 와서도 아픈 곳이 없으니 자신의 건강이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건강검사 받은 일에 대해 서로가 무관심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를 받고 난 며칠 후 걸려온 협회의 전화는 그녀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전화를 받으니까 저의 건강검사결과 재검사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시 와서 검사를 받아 보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찾아가 보니 강군옥원장님께서 저의 자궁에 이상이 있으니 재검사를 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평소 아프지도 않은데 이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재검사를 했는데 강원장님께서서는 1차검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라면서 당시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날 저녁 애아빠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크게 걱정하시면서 마침 아빠가 근무하시는 곳이 충남대학병원이니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자궁암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기에 이튿날 검사를 받은 결과 건협에서 받은 자궁암 조기증상진단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애아빠와 건협의 강원장님께서 애정어린 보살핌이 없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별로 아픈 증상도 없이 발전하는 자궁암을 건협에서 조기발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건강 검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강군옥 충남지부 부속의원장



건하게 된 그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수술을 받고 나서 환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되었다.

무슨 병이든 조기에 발견해야 함을 깊이 느꼈다.

『집에 돌아오니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난 기분이 들었어요. 내몸에 그 무서운 암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가 완쾌하고 나니 정말 기뻐합니다』라면서 그녀는 이번 수술을 계기로 느낀점이 많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처음 건강검사를 받기 위해서 견협을 찾았을때 건강한테 무슨 검사가 필요할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검사를 받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자궁암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나 그 무서운 암을 조기발견함으로써 조기치료를 하여 완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평소 건강할 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같은 가정주부들은 돈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때문에 자기 건강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견협에 처음 가서는 종합검사를 외면하고 부분검사만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수술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은 것은 내건강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산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는 사람만 만나도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건강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건강은 내 곁에 있을 것...

두번이나 큰수술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자 그녀는,

『사실 남들과 같이 여유있는 생활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틈이 나는대로 산책도 하고 산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며 겸손히 말한다.

건강한 생활은 건강한 정신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건강한 생활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기자가 말을 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가정주부들은 바깥양반들이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는 달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여유있는 정신적 건강 생활을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가족회의도 있었지만 가급적 제가 신경을 쓰지 않도록 애아빠나 아이들이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협회인이 협력하여 국민 모두에게 건강을...

결코 풍족하지 않은 평범한 생활속에서도 부군도 함께 삼남매를 남부럽지않게 키워온 정 춘자씨.

집수리 탓에 검은 머리에 하얀 먼지가 쌓이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해 보이지만 시종 웃는 낮에 화사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을 느끼게 해 주었다. 두 차례나 되는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내가정을 위해서 한 치의 쉽도 없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내부인, 우리 어머니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충남지부 부속의원장 강 군옥박사는,

『정 춘자씨의 경우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 최악의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오므로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협회의 정기검사를 조기정착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뒷받침과 아울러 협회인 모두가 단결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까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글〉